

# “약초주말농장 분양해 드립니다”



◇김인욱 사무소장

「단돈 10만원에 10평 남짓한 약초 주말농장을 분양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의정부를 경유 전곡에서 연천쪽으로 가다 내산리 방향으로 휘어 돌면 아직 오염되지 않은 맑은 물이 아미천을 따라 흐르고 오봉산이 병풍처럼 둘러쳐진 그곳에 이제 막 파릇파릇 새순이 돋기 시작한 2천여평 황기밭



◇약초주말농장 전경

과 집 한 채가 아담하게 자리하고 있다.

이곳이 바로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동막리 259소재 일명 약초 주말농장.

생약협회 연천군 사무소 김인욱 소장은 지난 4월말 이곳 주말농장에 황기씨앗을 파종하고 약초에 관심있는 일반 소비자들에게 10평 단위로 주말농장을 분양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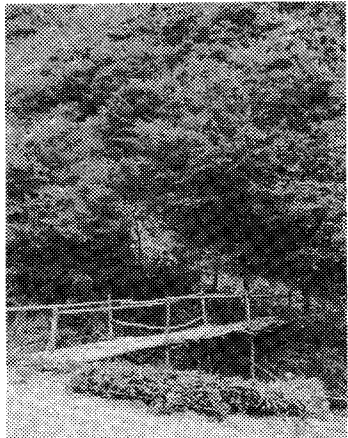
「주말농장 회원에 한해서는 주말이나 휴가기간 동안 가족끼리 와서 쉬어갈 수 있도록 간단한 취사도구와 방을 무료 대여해 드립니다」 김 소장의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주말농장에 달려 있는 텃밭에서 재배되는 고추와 상추, 깻잎 등 각종 야채도 이용할 수 있다. 뒤에는 울창한 숲속 오솔길의 등산로와 더운 여름에도 고드름

이 열리는 여름골이 있어 한여름 무더위도 거뜬이 식힐 수 있다. 오봉산 기슭에 서 솟아나는 맑은 약수는 자연수에서 맛 볼수 있는 특별한 보너스 거기다 봄에는 산나물, 가을에는 다양하게 서식하고 있는 자연산 약초도 마음껏 채취할 수 있다.

이외에도 약초주말농장은 각박한 도시를 벗어나 가족단위로 농촌에서 여가를 즐기며 직접 영농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자녀들에게도 좋은 자연 학습장이 될 수 있다.

연천약초주말농장 임대방법은 선착순이며 임대면적은 한 가족당 10평 이상이다. 임대료는 종자값과 일체의 농사비용까지 포함해서 평당 1만원이며 농기구는 무료 대여된다.

파종 이후부터 수확기 까지 병충해방제 등 전문적인 작업은 별도로 관리되며 제조작업 등 비교적 손쉬운 것들만 틈틈이 가족들과 함께 주말을 이용해 관리하면 된다. <문의 : 0355-34-2789>



◇농장뒤에 있는 산책로

# 인진쑥 ‘암예방’ 효과

인진쑥이 인체내 암 예방 및 발암물질의 생성과 활성을 억제하는데도 뛰어난 효능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가공제품 판매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강원대 농업생명과학대 식품·생명공학부 함승시 교수팀이 최근 민간요법으로 널리 활용돼 온 인진쑥을 성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단백질 함량이 4.7%로 일반 채소류에 비해 많고 칼슘 등 무기물이 많이 함유된 알칼리성 식품으로, 항암효과가 있는 비타민A가 풍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함교수팀은 인진쑥의 생즙·알코올추출물 등을 인체의 암세포에다 투여해 발암억제효과를 측정 한 결과 20~83%까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또 폐암·유방암·위암·육종암 등 4종류의 암세포를 대상으로 인진쑥의 사멸효과를 측정 한 결과 50% 이상의 높은 수치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써 함교수팀은 인진쑥의 추출물이 동물실험에서도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청지질을 억제하는 등 간기능을 개선하고 치료하는데 우수한 효능이 있으며 고혈압·비만·뇌졸중 등 순환기 질환의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음을 이번 연구를 통해 재입증

했다.

한편 인진쑥은 국화과의 여러해살이 식물로 현재 양양군 서광농협(조합장 김호열)이 인진쑥을 원료로 「인진쑥엿」, 「인진쑥아라리」 등을 가공판매하고 있다.

## 재배기술

### 생열귀나무 번식법

약용 및 건강식품으로 개발 가치가 컸으나 번식방법이 확립돼 있지 않았던 생열귀나무의 번식법이 확립됐다.

강원도 농촌진흥원은 자생 생열귀나무에 대한 번식방법은 4월이나 9월쯤 뿌리를 꺾꽂이 하는 것이 뿌리내림이 가장 좋다고 밝혔다.

도농진원이 가장 효과적인 번식방법을 구명하기 위해 가지가 완전 성숙돼 굵은 4월의 숙지(熟枝)와 9~10월 반숙지 및 4월 또는 9월쯤 뿌리를 꺾꽂이해 비교한 결과 뿌리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쉽게 번식됐다. 도농진원에 따르면 숙지·반숙지의 경우 뿌리가 나오는 비율이 20~24%로 낮았으나 뿌리 꺾꽂이는 뿌리가 90%이상 나오고 활착률도 83%로 우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길경** 현재 거래되고 있는 통길경은 근당(6백g 기준) 8천원에, 절길경은 6천원 선으로 꾸준한 오름세. 거래는 부진한 편이다. 영주, 안동에서 주로 많이 생산되나 값싼 수입산에 밀려 국내산 물량은 귀하다고. 수입길경은 kg당 3천원 선이다.

**두충** 한창 수확기임에도 두충시세는 다소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상품이 지난달 9천원 선에서 8천원으로, 중품이 8천원에서 6천원으로, 6천5백원 거래되던 하품이 근당(6백g 기준) 4천원 대로 값이 푹 떨어졌다. 전국적으로 두충 식재면적과 수확면적은 증가했으나 시세가 그리 좋지 않은데다 인건비 상승 등으로 농가에서 주피작업을 기피하고 있어 물동량은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후박** 한창 수확시기인 후박 역시 지난달 보다 다소 떨어진 근당(6백g 기준) 통으로 7천원 선에, 절로는 6천8백원 선에 도매거래 되고 있다.

**맥문동** 지난 5월 햇것 수확과 함께 거의 출하가 마무리되고 가고 있는 맥문동은 그러나 예년 비 재배면적과 생산량 감소로 시세는 여전히 상승곡선을 그려가고 있다. 청양산 거심 맥문동이 근당(6백g 기준) 1만2천5백원, 밀양산은 1만3천5백원에 산지거래 되고 있다. 막맥은 청양산이 1만원, 밀양산이 1만5백원 선을 유지하고 있으나 물량이 적어 거래 부진한 편이다.

**독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값이 오르고 있다. 현재 산지거래 시세는 근당(6백g 기준) 3천3백원선(상품). 산지에 남아있는 물량은 없다. 지난 95년 시세폭락 이후 약재용 생산을 기피하고

## 시세 동향

천원 선에 산지거래되고 있으며 절당귀는 7천5백원 선에 도매거래되고 있다. 일당귀는 근당 3천5백원 선으로 지난달 4천원 보다 다소 떨어졌다. 최근 계속된 비 때문인지 냉해를 입어 뿌리가 상하기도 하고 일부는 추대율도 높아 올 당귀 작황은 부진한 편이라고.

**택사**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품목. 지방에서 근당(6백g 기준) 5천7, 8백원 선(절)에 순매거래 되고 있다. 수확기인 오는 11월까지는 당분간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분석되며 햇것이 출하되더라도 재배면적이 예년만 못해 생산량은 그리 많지 않을 듯.

**산수유** 손으로 직접 씨를 발라낸 상품은 근당(6백g 기준) 8천원 선에, 기계로 작업한 중품은 7천원 선에 산지거래 되고 있다. 근당 5천8백~6천5백원 선에 거래되던 3, 4월에 비하면 무려 2천원 가까이 오른 가격.

값싼 수입산의 영향으로 국내 생산량이 감소한데다 최근들어 ‘보따리물건’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밀수품의 반입이 주춤한 때문으로 분석. 국내산은 묵은 것까지 거의 소진된 상태로 앞으로의 수입산 물동량 추이가 변수로 작용하겠지만 산수유는 당분간 오름세를 유지할 것이라 전망이다.

## 맥문동 독활가격, 하늘높은 줄 모르고 상승세 ‘보따리물건’ 단속강화로 산수유값 안정세 두충시세하락, 인건비 상승으로 농가 주피작업 기피 영향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나물용으로 출하가 물리는 바람에 독활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한 때문. 그동안의 재고도 다소 소진되고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남아 있는 물량은 약 5만근 정도에 불과할 것이라고 산지인은 추정. 당분간 상승세를 유지할 것이라 분석이다.

**당귀** 토당귀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일당귀 시세는 다소 주춤. 통으로 근당(6백g 기준) 5천2백원 선에 거래되던 토당귀가 5천5백~6